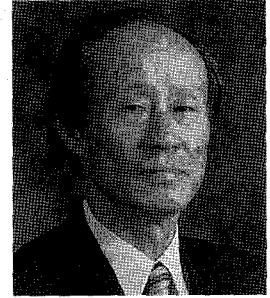


**T-11형 파렛트는 국제성이 뛰어난
당당한 국제표준규격이다**



(사)한국파렛트협회
전무이사 박은규

우리나라의 국가표준파렛트(일관수송용) T-11형(1,100mm×1,100mm)은 국제성이 뛰어난 ISO 국제규격파렛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내 일부 산업계나 학계에서는 T-11형 국가표준파렛트에 대하여 반대 또는 회의적인 주장을 펴는 사례를 볼 수 있다. 이는 T-11형이 가진 뛰어난 국제성을 모르고 단지 일부 업계의 반대 목소리를 과대평가 하거나 파렛트의 국제표준화 진행상황을 잘 모르고 특정 경제블록이나 다국적 기업의 주장에 별다른 생각 없이 동조하고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차제에 우리나라 물류시스템(물류모듈)의 기본이자 출발점인 국가표준파렛트 T-11형의 올바른 이해를 촉구하고자 한다.

1. 파렛트의 국제성이 매우 중요하다

한 국가의 일관수송용파렛트(국가표준파렛트)는 그 국가의 물류시스템의 기본이며 출발점이다. 또한 전세계에 걸쳐 매시간 11억불에 달하는 제품들이 움직이는 국제무역에 있어서 오늘날 파렛트는 전세계 유통의 platform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효율적인 세계유통시스템을 위한 계획 수립에 우리는 파렛트 사용에 대한 시야를 국경너머로 시야를 넓혀 국제적 교환과 유통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파렛트의 국제성은 더욱더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파렛트의 국제성이란 무엇인가? 여기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는 것이다.

- 첫째, 자국의 국가표준파렛트(일관수송용파렛트)가 ISO의 일관수송용 국제표준규격인가, 아닌가 이며,
- 둘째, 실제 국제무역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라는 점이다.

2. T-11형 파렛트는 당당한 ISO 표준규격파렛트이다.

ISO TC51은 세계표준화기구 파렛트 전문위원회이며 일관수송용 파렛트의 국제표준규격은 ISO 6780(일관수송용 파렛트의 주요치수 및 허용오차)으로 1963년 ISO R 198 및 ISO R 329로 처음 등장하였다. 이 당시 규격은 800mm×1,200mm, 1,000mm×1,200mm, 800mm×1,000mm, 1,200mm×1,600mm, 1,200mm×1,800mm이었다. 이것이 1988년 ISO 6780으로 개정되었으며 이 규정에는 1,200mm×1,000mm, 1,200mm×800mm, 1,140mm×1,140mm, 1,219mm×1,016mm의 4개 규격과 ISO 6780 전문에 1,100mm×1,100mm파렛트도 ISO 3676(유닛로드 치수) ±₄₀mm 규정에 따라 국제규격으로 인정받도록 명시되었다. 이것은 간접인정방식의 국제

표준규격이지만 이때 T-11형을 간접적이거나 국제규격으로 인정하게 된 것은 날로 확대되어 가는 국제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컨테이너와의 정합성에서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었다. 그 후 1996년 다시 ISO 6780의 개정작업이 추진되어 2000년 11월 26일 ISO DIS 6780(T-11형 포함 6개 규격)의 최종투표가 있었으나 2/3 이상 찬성에 미달되어 부결되었다. (일본의 코멘트가 기술적인 오류로 판정되어 부결되었음) 2001년 5월 21일 포르투갈 리스본 회의에서 이를 다시 부활시켜 ISO 6780 DIS 2로 재상정, 최종투표를 거쳐 FDIS로 확정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참고로 ISO 6780 DIS 2가 규정하고 있는 표준규격은 다음과 같다.

6개 규격 <정사각형 3개 규격, 직사각형 3개 규격>

- (1) 유럽 800mm×1,200mm, 1,000mm×1,200mm, 1,140mm×1,140mm
- (2) 미국 1,219mm×1,016mm, 1,067mm×1,067mm
- (3) 환태평양 1,100mm×1,100mm

현재 진행중인 ISO 6780 DIS 2에는 대륙간 대표규격으로 T-11형 파렛트가 환태평양지역의 표준규격으로 단일체시 되어있다. 이것은 장차 세계가 유럽(1,200mm×800mm), 북미권(1,219mm×1,016mm 또는 1,000mm×1,200mm), 환태평양(1,100mm×1,100mm)의 3개 규격으로 표준화하여 갈 것이라는 국제 파렛트 전문가들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이다. 여하튼 T-11형은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표준파렛트일 뿐 아니라 환태평양지역을 대표하는 당당한 국제표준규격임을 알고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3. 국제적으로 보급 · 사용이 확산되고 있는 T-11형 파렛트

국가표준파렛트(일관수송용파렛트)를 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국가의 주 운송수단과의 정합성과 모든 산업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며 국제표준규격 또한 국제무역에서의 주 운송수단과의 정합성과 여러 나라가 다 함께 사용하고 있는 범용성인 것이다.

T-11형 파렛트는 국제무역에서 현재 주 운송수단인 해상컨테이너와의 정합성에서 가장 뛰어난 파렛트로 인정받고 있으며 날로 그 사용국가가 증가하고 있다. T-11형 파렛트를 국가규격으로 채택 · 사용중인 국가로는 일본 : JIS Z 0601, 한국 : KS A 1638, 타이완 : CNS 8172 Z 5099, 호주 : AS 4068, 싱가포르 : SS 334, 태국 : TIS 588-2528 등이다.

4. 국가 표준파렛트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T-11형에 의한 일관파렛트화에 참여를!

이와같이 T-11형 파렛트는 이미 환태평양 국가들의 표준규격파렛트로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중국 및 뉴질랜드도 곧 국가규격으로 채택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국가 규격은 아니지만 국제무역(해상컨테이너용)용으로 사용하는 국가는 이밖에도 유럽(영국, 네덜란드 등), 미국의 서부 등에서도 사용되어지고 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국가표준파렛트인 T-11형 파렛트가 이와 같이 국제성이 뛰어난 당당한 국제표준규격파렛트로 환태평양지역을 대표하는 파렛트임을 확실히 인식하고 국가물류표준화의 출발점이며 기본인 T-11형에 의한 일관파렛트화에 모든 업계가 적극 동참할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